강원 고성신문
THE GOSEONG WEEKLY NEWS

박형수 법률사무소
"고향 주민들의 상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성고 24회 졸업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50(시외터미널 근처)
상담문의 Tel : (033) 633-3635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 홈페이지 : goseongnews.com 제 37 호

송강포대 주둔지 사격훈련 강력 반발

송강리 주민들 트랙터 몰고와 위병소 앞 5시간 농성 … 향후 타지역서 하겠다는 '각서' 받고 해산

부대측 "상급부대 지침으로 주둔지 훈련"
경찰 병력 50여명 출동, 돌발 사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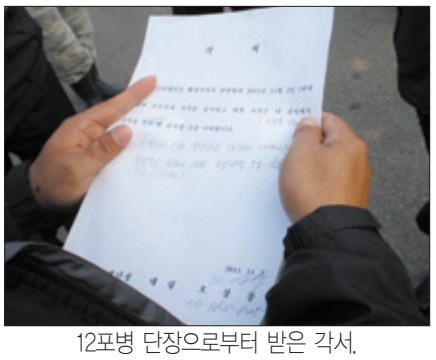
지난 3일 송강포대 주둔지 사격에 항의하는 송강리 주민들이 위병소를 통과하려다 부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거진읍 송강리 주둔 송강포대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주둔지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자, 송강리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트랙터 등을 동원한 채 위병소 앞에서 5시간가량 농성을 벌이다 부대측의 각서를 받고 자진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위병소를 통과하려고 시도하다 부대원들과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고성경찰서에서 병력 50여명을 긴급 출동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초긴장이 조성되기도 했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강포대는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주둔지에 있는 6문의 포를 해상으로 사격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대 관계자는 "이번 사격훈련은 연평도 폭침처럼 주둔지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 응전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연중 2회 정도만 주둔지에서 하고 평소에는 이전처럼 대대리에서 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강리 서동규 이장이 주민들에게 12포병 단장으로부터 받은 각서를 읽어주고 있다.


12포병 단장으로부터 받은 각서.

송강포대 주둔지 사격 직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위병소 유리가 파손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대리에서 사격훈련을 할 수 없게 되자 앞으로도 계속 송강리에서 하려는 의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부대 위병소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송강포대에서 불과 100m 거리에 민가와 축사가 있어서 단 한번의 사격으로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고통과 소가 새끼를 배지 못하거나 유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오전 10시부터 부대 앞으로 모여든 30여명의 주민들은 예정된 사격훈련 시간인 오후 2시를 30분 앞둔 1시30분께 부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대 관계자가 주민들 속에 섞여 있던 황상연 군의원에게 '넘어오면 구속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며 극심한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후 계속 주민들과 군부대측이 위병소 앞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1시57분께 12포병단장 오상봉 대령이 현장에 도착했다. 오단장은 "1년에 1~2회만 하는 것이며, 마을에 포탄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왜 반대하는냐"며 "가축 유산 등은 배상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고수하자 오단장은 "기본적인 사격훈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상급부대의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인데, 반대를 하려면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해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결국 2시16분께 서동규 송강리 이장과 마을 총무, 황상연 의원 등 주민대표 3명이 오단장과 별도의 협상을 시도했으며, 2시20분께는 고성경찰서장이 직접 병력 50여명을 대동하고 현장에 도착해 협상 테이블에 합류했다.

2시27분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오단장은 주민들에게 "오늘 해상 사격을 위해 어민들을 바다에서 철수시켰으니, 일단 오늘 사격은 하고 다음에는 진지를 옮겨서 하겠다"고 했으며, 주민들은 각서로 써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오단장은 '12포병단은 해상사격과 관련하여 11월 3일 1회에 한해 주둔지에서 사격을 실시하고, 향후 사격은 타 진지에서 실시할 것과 이번 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10개월까지)에 의해 보상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이에 따라 2시50분께 가까스로 사격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6문의 포를 동시에 사격하는 것으로 진행돼 약 3초만에 끝났다. 포사격과 동시에 위병소와 인근 건물 등 2곳의 유리가 파손될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심했다. 주민들은 농성을 시작한지 5시간만인 오후 3시께 자진 해산했다.

서동규 송강리 이장은 "부대에서는 이번 한번뿐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60여년간 주둔지에서 한번도 사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격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우려돼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이장은 또 "분명히 이번 사격으로 소가 유산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배상을 약속한 만큼 유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다른 부대가 대대리 포사격훈련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포신을 향한 채 사격훈련을 했으며, 이로 인해 간성읍내 상가의 유리창이 흔들리는 등 진동이 심하게 발생했다.

간성읍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다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며 "사람들이 전쟁이 났는지 알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 · 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